



2011년 일본 경상수지 흑자 15년 만에 최저치 갱신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재무성은 2월 8일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조 6,289억 엔으로 전년대비 43.9% 급감하는 등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 - 경상수지가 감소한 것은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지만 다행히 소득수지의 흑자폭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함.
-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조 6,090억 엔 적자로 전환되어 1963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.
 - 금번 무역수지 적자는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대홍수 등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차질을 빚은 데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수입이 급증한 것이 원인임.
 -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수출은 전년대비 1.9% 감소한 약 62조 7,234억 엔 규모이며, 수입은 전년대비 15% 증가한 64조 3,323억 엔 규모임.
 - 수출 감소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이 14.2%, 자동차가 10.6% 감소하였으며, 수입 증가 품목은 원유 21.4%, 가스 12.2%, 석유류 39.5% 등임.
 - 서비스수지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외국인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전년대비 23% 감소하여 1조 6,407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 추세임.
- 소득수지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과 외국채권 이자 등의 증가로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19.9% 증가세로 전환되어 14조 296억 엔을 기록함.
 - 한편, 일본 최대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은 엔고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국내외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11년 7,800억 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일본기업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(일본재무성, 아사히신문, 요미우리신문, 니혼게이지아신문 2/9 등 뉴스종합)